

다문화사회, 다양해서 더 즐거운 학교 길라잡이
다문화 역량 강화 지원 체계

■ LESSON 1. 다문화 인식 교육 강화

■ LESSON 2.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다각화



다문화 사회에서의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문화적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격차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문화 인식의 변화, 즉 다문화 감수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성시온, 2010; 배재정, 2010; 김예랑, 우수명, 2011; 한수진, 정진경, 2012; 이지영, 2013 등)은 문화간 감수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의 사회 적응과 통합감을 높이기 위해 유, 초등학교 시기부터 다문화 수용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가 중요하며, 아울러 유·아동기부터 문화 간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전개될 다문화 사회에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문화적 역량이란?

문화적 역량에 대해 Cross와 그의 동료들(1989; 박성옥 외, 2017 재인용)은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계층,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Lynch(2000; 박성옥 외, 2017 재인용)은 다인종적 혹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인 다양성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적 역량은 단일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 국가, 성, 세대, 지역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관용, 수용, 문화 간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며 성, 세대, 문화, 종교 사이에서 시스템적 소통의 형태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여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antini(2007)는 문화적 역량을 ‘자신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이후 Bazgan & Popa(2014)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가치, 존중, 개방성, 공감 등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측면만이 아니라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상이한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발전시켰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OECD는 생애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정의한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를 발표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3가지 핵심능력 중 하나로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를 선정하였다. 이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점점 다원화 되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다룰 필요가 증가하고, 공감이 중요해지며, 사회적 자본을 찾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량, 즉 타인과 잘 관계 맺는 능력, 협력과 팀워크 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ekemans(2014)는 문화적 역량을 첫째, 자신과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필요한 역량, 둘째, 이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역량, 셋째, 이들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기술하며, 이러한 역량들은 다음 과 같이 가치, 태도, 기능, 지식과 이해, 행동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표 1> Bekemans(2014)의 문화적 역량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가치	문화의 변동성과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관점과 실천의 다원주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다른 문화를 배우려는 적극성, 공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대한 개방성, 판단보류, 호기심,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 유연성, 문화다양성의 가치 인정
기능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그들과 소통하기, 다른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언어적·비언어적 담화 수행하기, 문화간 교류에 참여하기, 다른 문화에 관한 정보 파악하기, 다른 문화를 해석하고 문화들을 서로 연관짓기, 공감 및 다양한 관점과 인지적 유연성 지니기, 문화적 관점 및 실천, 결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지식과 이해	문화적 자기 인식, 의사소통 인식,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와 관련된 지식, 특정 문화집단의 관점 및 실천, 결과에 대한 지식, 문화에 대한 일반적 지식, 문화적·사회적·개인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지식, 사회언어학적 인식, 문화적 적응 과정 관련 지식
행동	문화간 소통 중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의사소통하기, 문화적 행동 및 의사소통 행동 시 유연하게 대처하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과 협업하기,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책임 다하기

※ 출처: 장의선(2018).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자료집.

2.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

많은 연구자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화적 역량의 핵심개념인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형성된 부분이며,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능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계화, 지구화 현상은 한 개인의 삶의 세계를 가정과 마을, 한 민족의 집단을 넘어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세계 공동체로 확장시켰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사회에는 이러한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 전통적 의미의 국경과 시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강조해온 언어 및 수리능력에 못지않게 미래의 핵심역량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서 Bennett(1993, 2004)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개인들이 문화간 장벽에 대처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각기 다르며, 다음 여섯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표 2> Bennett(1993)의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 발달단계

자민족 중심적 단계 자신의 문화가 현실인식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차이를 회피하는 단계	
1. 부정	자신의 문화만이 진짜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와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피한다.
2. 방어	다른 문화들 간에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역시 자신의 문화만이 가장 세련되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3. 경시	문화차이를 회피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을 사용한다.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경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문화와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긴다.
민족 상대주의적 단계 문화차이를 추구하고 타문화의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를 경험하는 단계	
4. 수용	타문화가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5. 적응	관점을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6. 통합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한다. 다문화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어느 한 문화에 정박시키지 않고 넓어진 경험세계를 포괄하기 위하여 자아 정체감을 재정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출처: (재)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서(2013)

3. 다문화 감수성 측정

다음에 제시한 척도는 Chen(2000)이 개발한 ‘다문화 감수성’ 척도로 전체 5개 하위영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다음은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보기에 솔직하게 V표시 해주세요. 숫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3> Chen(2000)의 다문화감수성 척도

문항	내용	1	2	3	4	5
1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긴다.					
2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내 나름대로 그들의 첫인상을 규정하기 전에 기다리며 살펴본다.					
3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다.					
4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동안 그들에게 가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5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피한다.					
6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끔씩 내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어 혹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					
7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바로 그점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8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속이 좁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0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존중한다.					
11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존중한다.					
12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13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남의 문화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상당히 자신이 있다.				
15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한다.				
16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대화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17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내가 원하는 정도껏 사교적이 될 수 있다.				
18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신만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19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화를 쉽게 낸다.				
20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끔 의기소침해진다.				
21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종종 이런 교류가 헛된 것이라는 느낌을 가진다.				
22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매우 날카롭게 그들을 관찰한다.				
23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정보를 그들로부터 얻고자 노력한다.				
24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도중 그들이 보여주는 미세한 표현들에 대해 민감하다.				

※ 다문화 감수성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으로 자신의 점수를 영역별로 산출해 보세요.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점수
상호작용 참여	1, 2, 3, 4, 5*, 6, 7	7	
문화차이 존중	8*, 9*, 10, 11, 12*, 13*	6	
상호작용 자신	14, 15*, 16, 17, 18	5	

상호작용 향유	19*, 20*, 21*	3
상호작용 주의	22, 23, 24	3
총 합산 점수	(* 는 역채점)	24

4.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 및 사례

1) 다문화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

Bennet(2009)은 학생들에게 ‘타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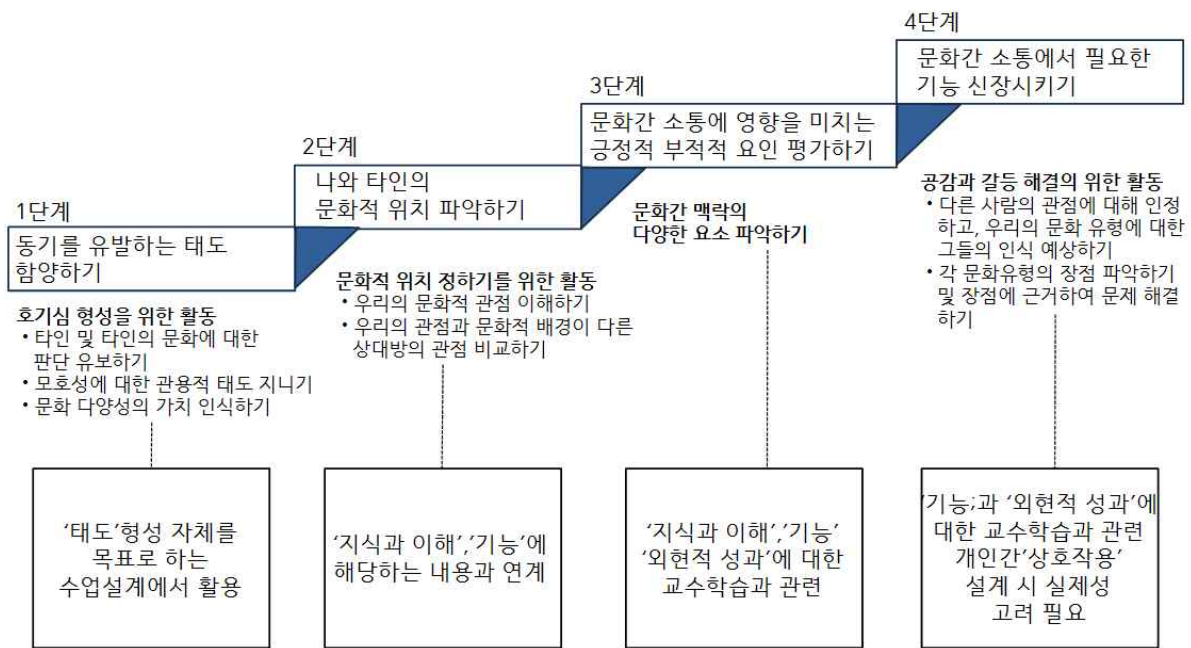
1단계는 호기심 형성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며,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다.

2단계는 주어진 상황에서 문화적 위치 정하기 활동이 중심이 되며, 다양한 문화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단계는 문화 간 맥락의 다양한 요소 파악하기가 활동이 심이 되며, 문화 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

4단계는 공감하기와 갈등해결하기 활동이 중심이 되며, 하위 기능으로는 정보수집하기, 듣기, 공감하기, 갈등해결하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그림1]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구성단계



※ 출처: 장의선(2018).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자료집

2)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사례

본 교수 학습사례의 예시는 장의선(2018)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중학교 3학년의 ‘문화 다양성과 세계화’ 단원에서 ‘세계의 문화 블루오션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문화 간 편견과 갈등 극복을 위한 문화 간 소통 역량증진’과 ‘문화 간 소통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호발전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다.

1차시는 개방성, 호기심, 타인존중 등의 동기유발로서 필수적 태도를 고려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 거꾸로(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하는 이슬람문화) 쓰인 활동지를 작성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먼저 나누고, 문화 다양성이 반영된 상품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차시는 모듈별로 문화다양성을 반영하는 상품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우리 문화를 인식하고 나와 다른 관점(문화적 특수성) 다른 세계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차시의 주요 활동은 관찰, 듣고, 분석, 해석, 관련짓기 등을 통하여 문화 간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는 각 모듈에서 만든 문화 상품을 판매해 봄으로써 상대주의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면화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에 필수적인 태도, 지식, 기능, 등의 학습 결과를 외현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사례

주요 교수 학습 활동	
1단계	▶ 아이스브레이크 활동: 공통점 찾기, 인간빙고게임 ▶ 학습목표 파악하기 : 호기심과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 동기유발 : 거꾸로 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활동지 ▶ 교수법 : 액션러닝기법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해 개인 간 경험, 감정, 인식 등 나누기 ▶ 본 활동 : 문화다양성을 반영하는 상품개발을 위한 모둠별 아이디어 릴레이, 다중투표
2단계	▶ 동기유발 : 주먹 쥔 손 펴기(갈등관리)와 사진 고르기(상대방 설득하기) ▶ 본 활동 : 상품아이디어 발표를 위한 준비 상황제시 : 세계로 가는 청소년 창업 박람회 참가 신청 ↓ 활동 1 : 문화다양성을 반영하는 상품아이디어 광고판 제작 ↓ 활동2 : 상품아이디어 발표 장면 만들기
3단계	▶ 홍보 : 모둠별 문화 상품 판매전략 홍보하기 (각 모둠별 2분 배정) ▶ 투자 : 청소년 창업 박람회 상품에 투자하기 ▶ 발표 : 개인별로 성찰하기(모듬내 각1분)와 모듬별 종합 발표(모듬별 각 4분)

2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다각화

다문화학생 지원 대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이 아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즉 언어 습득이나 당장의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모국어 학습이나 이중문화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이 주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심의 서비스,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로 부터 중학교에 진입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재학유형별 출생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지역이나 연령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어나 지적능력을 개발할 사회적 인프라가 적은 지역일수록 발달이 더디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1. 다문화학생 역량 강화의 방향

다문화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일방적인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써 한국어 지원, 한국문화 학습, 다문화 학급 지원 등을 통해 한국 학교와 한국 사회에서의 빠른 적응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방적인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다중적 정체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정체성을 위한 대안으로 ‘혼종적 정체성(hybridity)’이라는 용어로 볼 때 서로 다른 인종, 언어, 문화, 전통, 관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접촉’과 ‘공존’을 통해 함께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흡수’와 ‘동화’가 아닌 ‘상호관계’, ‘상호연결’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박홍순, 2008).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세대들은 부모로 대표되는 두 문화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집단이다. 이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국가적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향후 국가 간 교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에이전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결국 다문화학생이 향후 다문화 사회를 촉진시키고 한국사회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가능성 및 잠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다.

2. 다문화학생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정책에서의 고려 사항

국내 다문화교육기관 및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우,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언어, 학습, 생활 지원,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지원,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 역량 강화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다문화 학생 차이에 민감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큰 문제점으로는 재정지원 등이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지원 기반이 불안정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개선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다문화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틀 속에서 다양한 영역과 수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다문화 교육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개인성을 인지하여 차이에 민감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실행할 때, 다문화학생이 자신의 문제와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와 파트너십 모델로 협력을 도모한다. 다섯째, 다문화학생의 건강한 성장은 가정과 지역공동체 등 이들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현장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다각적 모색

1) 한국어 교육 지원

교육부는 2012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위해 공교육체제 내에 한국어(KSL) 교육과정 실시, 2017년 한국어 교육과정 수정·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나아가 2019년에는 ‘표준한국어’ 교재 보급, ‘익힘책’ 개발, 담당교원 연수,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시스템’ 개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에 보다 초점을 맞춰 교육내실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덧붙여 교육 실천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측면에서 한국어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우수 KSL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확산해야 한다.

둘째, 운영체제 측면에서 지원주체별 역할 및 상호관계를 명료화하고 공식화해야 할 것이다.

참조: 2019년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담은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 19.8월)

<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도 >



셋째, 교.강사 운영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교육 경험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다. 한국어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가정-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측면에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이 정착하여 사회적 인지를 얻으며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정연계 및 학부모교육 외 유관기관들 간

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모임, 지역 내 외국어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

2019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급 전환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생활영역과 학습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추후 2020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다문화학생이 학교적응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중학교 단계에 학습능력의 격차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더욱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다문화학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특히 국어과목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미숙한 한국어 사용은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의 학습 부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에서의 맞춤법, 어휘 능력, 문법 능력, 문장 및 담화 능력이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 사회, 관습, 예절 등에 대한 기초 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회과목을 특히 어려워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다문화 사랑방 활용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한글 익히기와 방과 후 학습지도, 기본학력 급수제 등을 운영

둘째, 다문화학생과 담임 간 1:1 결연을 통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활동 강화

셋째, 다문화학생 이웃 친구와 1:1 결연 맺기를 통해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친한 친구 맺기

넷째, 교내 학부모, 교사,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하여 숙제지도, 준비물 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실시

다섯째, 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대학(원)생 교사제를 활용한 학습지원 멘토링

여섯째, 지역아동센터 외 지역사회 내 방과 후 공부방을 활용한 학습지도 연계

3) 이중 언어 역량 개발 자원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서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 언어 교육 강화가 선정되면서 이중 언어강사를 양성하여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중 언어교육은 2019년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다문화학생의 강점 개발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의 한 일환으로 지속 개발의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중 언어학습 장려를 위하여 ‘전국 이중 언어말하기대회’ 참가 자

격을 다문화학생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확대 추진하고, 이중언어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19 하반기)할 계획이다.

그 동안 추진된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문화정체성을 확보, 이중언어 실력의 향상이나 세계시민으로서 역량강화 기회 제공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 증진, 중도입국학생의 수업지원이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중 언어 강사 양성시스템이 구축된 점은 성과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중 언어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는 현실성이 낮은 점, 어느 일부 국가 언어에 치중되는 현상, 이중 언어교육의 지속 및 유지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첫째, 다언어 수업을 위한 환경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과 지속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언어 강사 풀의 유지, 발전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언어강사 양성기관을 지정, 강사양성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중 언어강사 대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나아가 보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어 지속가능한 다중언어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언어 포괄, 자녀들의 연령대나 언어 구사 수준 등에 따른 교육과정 정교화, 기본적으로 학년별, 해당언어 구사 수준별로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가급적 세분화된 교육 과정 개설 지원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것이 어렵다면,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층, 교육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언어 구사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이들의 발전단계를 따라가면서 교육과정을 확대해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다문화 체험교육 활성화

문화의 다양성, 존중의식의 제고 및 다문화 인식개선에 대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주제의 다문화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분야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체험 영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생활문화 체험:세계 여러 나라 의식주 생활문화 및 관혼상제 등의 풍습 및 생활양식, 전통 명절 및 생활 예절 등 관련 콘텐츠 구상 및 체험 프로그램
- 놀이문화 체험:다문화 페스티벌, 미니올림픽, 다문화 놀이한마당 등을 통한 나라별 전통 놀이문화 관련 콘텐츠 구성 및 체험 프로그램
- 역사문화 체험: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주제의 구성 및 시청각 자료 등의 체험 프로그램
- 예술문화 체험: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5) 다문화학생 진로지도 방안

다문화가정 학부모도 자녀의 진학, 진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언어장벽, 한국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관에 대한 문화적 차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질 경제적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다문화학생 진로지도를 위해 몇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학부모 진로교육 기회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할 때 다문화가정 출신의 역할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자신과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성공이 더욱 공감을 이끌어 내 성취동기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조: 2019년 교육부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사업
(진로멘토링)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확대(’ 17년 60교→’ 18년 80교) 확대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mentoring.career.go.kr) 사업과 연계,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학교 등 희망 학교에 서비스 제공

셋째,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및 상담의 관점은 한국사회의 적응 및 지원을 강조하는 ‘결핍의 관점’과 다문화학생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가능성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핍의 관점	가능성의 관점
■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원을 강조 ■ 다문화라는 특성만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외 계층화 ■ 일반 학생과는 다르게 다른 집단의 사람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이를 진로의 강점으로 판단 ■ 이중언어 환경 및 모국어 능력의 활용 ■ 이중문화의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 다문화가정 자녀 출신 역할 모델의 사례

6) 다문화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다문화 학생의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결손 심화 및 학교부적응,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으로 위축, 불안 등 심리적 불안정에 대한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문화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접근을 통한 정서적·, 발달적 개입에 필요한 다문화상담 전문 인력이 미비한 실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정보 및 기술, 자료의 부족으로 다문화 학생 상담 진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전문화된 상담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특수성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사례개념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적절한 개입기술, 타국에 대한 생활양식, 사회적 문화이해의 역량을 갖춘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예랑, 우수명(2011). 국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다문화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사회사업 39권.
- 교육부(2019). 2019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
- 모경환, 이재분, 홍종명(2015), 다문화 자녀 언어교육강화방안.
- 박성옥, 김윤희, 박선영, 이선숙(2017). 다문화학생 상담현황 및 사례분석. 교육부 연구 보고.
- 박홍순(2008). 이주민의 정체성과 포스트콜리니얼 대안.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코리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63-86.
- 배재정(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및 평가방안 탐색:DMIS 와 IDI 의 적용 및 활용. 어린이 미디어연구, 9(3).
- 성시은(2010). 한국어 교사의 교사의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서(2013).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프로그램 개발 연구.
- 윤인진, 김은비 (2012). 다문화가족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사회정체성, 이중언어학회, 48, 273-307.
- 장의선(2016). 국내의 주요 제도권 문서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적 고찰-유네스코의 주요 문서와 국내의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8(4), 99-127.
- 장의선 · 이소연 · 강민경 · 한건수(2016).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I 2016-3.
- 장의선(2018). 문화다양성 역량증진방안 및 적용. 2018년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자료집.
- 최윤아(2018). 다문화학생 진로지도 방안. 2018년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자료집.
- 한수진, 정진경(2012), 초등학생의 다문화경험과 문화간 감수성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16(1).
- Bazgan, M., & Popa, D. (2014).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past, present, and promise. Journal Plus Education, Vol Special issue, 44-60.
- Bekemans, L.(2014). Intercultural Dialogue and Human rights: A Crucial Link for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In UNESCO. From Words to Action, Port-folio on Human right based intercultural competences. article 3. UNESCO Publication, 1-18.
- Bennet, J. C.(2009). Cultivat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process perspective. In D. K. Deardorff (Ed.),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CA: SAGE Publications, 121-140.
- Bennett, J. M & Bennett, M. J.(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London : Sage.
- Bennett, M. J.(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R.M.(Eds),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2nd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Inc.
- Chen, G. M., and Starosta, W. J.(2000, Novembe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86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attle, WA.
- Christine I. Bennett(김옥순, 김진호, 신인순 역)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Brian, H. S. & Gabrielle C.(2009). Conceptualiz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D. K. Deardorff (Ed.),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CA: SAGE Publications, 2-52.
- Fantini, A. E.(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Global Service Institute.

UNESCO(2009). Inver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ESCO Word Report.